

한국이슬람연구회문서 ⑥

# 마지막 선지자의 삶

(The Life of the Last Prophet)

지은이: Yusuf Islam

옮긴이: Amina Zahid (곽은미)

낭독: Fethullah (이형주)

 한국이슬람연구회  
KOREA ISLAMIC RESEARCH ASSOCIATION



This book is translated from “The Life of the Last Prophet” into Korean Language published by Mountain of Light, U.K. If you want more copies, please contact the address below.

Address: Korea Islamic Research Association  
K.P.O. BOX. 1476 SEOUL/SOUTH KOREA

E-mail: muslimkorea@hanmail.net

Homepage : <http://www.muslimkorea.net>  
<http://www.quran.or.kr>

모든 저작권은 한국이슬람연구회(KIRA)가 소유하고 있으니  
내용을 바꾼 인쇄나 복사를 금합니다.

©2001 한국이슬람연구회

처음 찍은 날 2001년 2월 1일

# 마지막 선지자의 삶

(The Life of the Last Prophet)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BISMILLAH IRRAHMANIRRAHIM  
비쓰밀라 - 히르라흐마 - 니르라힘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 목 차

### 머리말/4

### 사도님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8

### 마지막 선지자

(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삶/10

### 초기의 삶/10

외로운 고아/10

믿을 수 있는 자/11

검정색 돌/12

다신론자들과 우상들/13

### 사도직/14

동굴/14

읽으라!/15

개막/17

유일하신 하나님/19

거부와 보이코트/20

기적의 밤의 여행/22

시드라 나무/24

### 이주/25

매일 다섯번의 예배/25

메디나/26

최초의 헌법/28

이주자들과 조력자들/28

자선과 단식/28

성서를 받은 민족/29

전쟁 허락/31

바드르 전투/31

후다이비아의 휴전/32

지배자들에 대한 부름/33

공동의 조건/34

### 메카 정복/34

메카가 열리다/34

무너진 우상/35

진리의 종교/36

순례의 끝/36

이 날/38

사도의 죽음 /38

기도 /39

선지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말씀들/40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계도/46

선지자 무함마드의 삶의 연표/47

이슬람 용어 사전/48

## 머리말

“하나님이 그대(무함마드)를 보냄은 만백성에게 자비를 베푸기 위해서라.”

(꾸란, 21:107)

사도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부차나 예수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나 성인들은 생전에 자신에게 부과된 사명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주장이나 설교는 그들이 죽은 후에야 종교로 엮어지고, 그제야 삶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자신이 부과된 사명을 생전에 수행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사도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하나의 종교를 가르치고, 하나의 도시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를 세웠으며, 거기에 도덕규범을 내리깔고, 셀 수 없이 많은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시작했으며, 그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고 나타내는 역동적이고 강력한 사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인간사고와 행동의 세계를 영원히 개혁시켰습니다.

사도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570년, 아라비아에서 태어나셨고,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전 아라비아 반도가 이교도주의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유일신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부족 싸움과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적 단결과 일치로, 어둠과 방탕으로부터 절제와 경건함으로, 무법과 무정부상태에서 규율있는 삶으로, 순전한 도덕적 타락수준에서 고결한 도덕심의 높은 수준에까지 전

이라비아 반도가 탈비꿈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위대한 인물들의 가르침과 삶은 시간이라는 안개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탄생날짜와 장소에 관해서, 그들 인생의 양식과 방식에 대해서, 그들 가르침의 성격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측정과 그 정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찰이 있어왔지만, 오늘날 인류가 이들 위대한 사람들의 삶과 가르침을 다시 정확하고 꼼꼼하게 다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역사가 기록되는 가장 활발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며, 더군다나 그의 사적 공적 생활과, 그의 언행의 모든 사소한 것들이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보존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보존된 정보의 신뢰도는 단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편견 깊은 비평가나 사고가 개방적인 학자 모두에게서 보증받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마이클 H. 하트(Michael H. Hart)가 지금까지 실재했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뽑아 저술한 '세계사를 바꾼 고위의 사람들 100'이란 그의 저사에서 그가 가장 위대하고 생각한 최고의 인물은 예수도 아니고 뉴턴(서기 1643-1727)이나 부처(기원전 566-486)나 공자(기원전 551-479)도 아닌 무함마드(서기 570-632)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상식으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노력을 빛나게 한 현상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화신,

---

1. Michael H. Hart(1992) 'The 100: A Ranking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History', Citadel Trade, [http://www.adherents.com/adh\\_influ.html](http://www.adherents.com/adh_influ.html)

그분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인류에게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인류에게 완벽한 행동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선택받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고귀하고 기상 높은 임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의무는 유일한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인류를 단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법과 명령에 일치하는 정직하고 곧바른 삶으로 인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항상 그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시종이라고 묘사했는데, 실은 그의 모든 행동, 동작 하나 하나가 모두 그 자신의 주장에 일치했습니다.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그 분들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무슬림들도 무함마드를 섬긴다고 잘못 유추하고, 그것을 공식화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오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주 오래 동안이나 무슬림들을 잘못된 이름인 “모하메단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그의 생애에서 단 한번도 그가 신과 같은 능력이나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숭배할 것을 외쳤습니다.

불교가 ‘부처’를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로아스터교가 ‘조로아스터’를 지칭하듯이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종교의 이름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마호메트교’라는 이름은 강정했던 이슬람세계의 문화와 역사에 반발하여 대처해 온 서구인들이 이슬람을 격하시키기 위해 사마니즘적인 종교인양 왜곡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



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존경과 사랑의 의미가 그들을 섬기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굉장한 사람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와 기쁨을)의 인생에 대해, 이 지구상에 비등할 자 없이 유일하게 뛰어났던 그의 삶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2004년 2월

● 사도님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



## 예배시간을 알리는 부름(아단):

알라후 아크바르,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알라후 아크바르,  
이쉬하두안 라 일리하 일랄라,  
이쉬하두안 라 일리하 일랄라,  
이쉬하두안나 무함마단 라수물라,  
이쉬하두안나 무함마단 라수물라,  
하이야 알랏쌀라,하이야 알랏쌀라,  
하이야 알랄팔라,하이야 알랄팔라,  
알라후 아크바르,알라후 아크바르,  
라일리하 일랄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나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하노라.  
나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하노라.  
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노라.  
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노라.  
예배보러 올지이다. 예배보러 올지이다.  
축복을 빌러 올지이다. 축복을 빌러 올지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 마지막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삶

### 초기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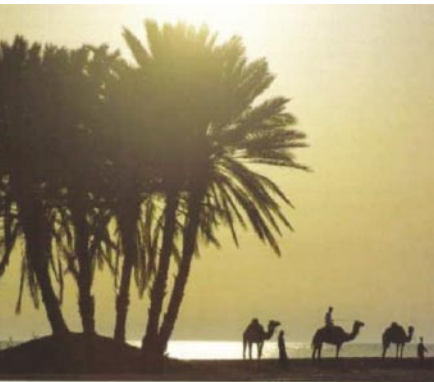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온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 분의 인생은 전 시대와 인류를 위한 빛과 안내자의 상징으로 영원히 빛난다. 그 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주신 여러 사도님들 중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시며 또한 선지자이시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이르기를:

라 일랄하 일랄라 무하마단 라술룰라  
(하나님을 제외한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메시지이자 정수이다.

### 외로운 고아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예수(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 다음으로 600년 후에 오신 분으로 아라비아의 거친 사막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 곳은 깊고 어두운 산들이 휘장처럼 둘러 쳐진 깊은 계곡에 자리잡은 메카라는 도시였다.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위었고, 당시 아랍 관습에 따라 사막에서 이유기를 보내고 자랐다. 어린 나이 여섯 살에 어머니 아미나조차 여위어, 할아버지 압둘 무딸립이 혼자 남겨진 무함마드를 돌보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의 형제인 이부딸립의 보살핌을 받았다.

메키는 도시 안에 카으바가 자리잡고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유명한 곳이 되었다. 카으바는 진정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한 인류 최초의 건물로, 삼천년 전 선지자자 아브라함(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이 그의 장남 이스마엘(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의 도움을 받아 건축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정착시킨 곳이 바로 여기서 사막의 인적이 드물고 황폐한 계곡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메키는 점점 순례의 도시,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하였고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예멘간에 거대한 대상 무역 또한 이곳을 통과하게 되었다.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직계 자손으로 유명한 귀족 가문 바누 하섬에 속한다.

양을 돌보는 소년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눈부시게 작렬하는 태양 아래서 메키의 골짜기 주위로 양떼와 염소 떼를 몰곤 했다. 선지자직을 거행할 운명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양을 돌보는 일과 비슷한 임무가 주어지곤 했다.

## 믿을 수 있는 자

청년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민, 즉 정직하고 신뢰가 깊은 사람이라고 불려졌는데, 이것은 그의 정직함과 고상한 인품 때문이었다. 그의 삼촌은 무함마드를 지극히 아꼈으며, 시리아로 가는 교역 여행길에 그를 동반할 정도였다. 이 기회로 무

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상인으로서 생계를 꾸려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사업에 소질이 있었다. 대체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의 진실함과 관대한 성품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다.



메카의 가장 영예로운 숙녀들 중에는 카디자가 있었다.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그녀를 위해 일했는데, 두 번이나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는 연상의 그녀로부터 그의 나이 스물 다섯에 간접 청혼을 받았다.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결

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와 무함마드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이 있었으나 슬프게도 두 아들은 어려서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은 아주 이상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은 축복 받은 완벽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였다.

## 검정색 돌

무함마드의 사업과 현명한 조언은 크게 추대 받았다. 한 번은 심각한 홍수로 카으바의 담이 손상되어 재 건축하게 되었을 때 꾸레이쉬의 주요 네 부족들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것은 어느 부족에게 신성한 검은 돌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가 하는 영예가 돌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작은 다툼이 시작되려 할 때, 원로들 중 한 명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 
1. 까심(Qasim), 압둘라(Ah'd A#ah)
  2. 자이납(Zaynap), 루꾸이야(Ruqayyah), 움물 꿀쑤(Umm Kulthum), 파티마(Fatimah)

“이 문에 최초로 들어오는 사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자”라고 그 원로가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누가 처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지를 지켜 기다리는데 마침 거기에 무함마드가들어오자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알아민(신뢰가 깊은 사람이란 뜻으로 무함마드를 가리킴)”이라고 그들은 외쳤다.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이제껏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자, 돌을 운반할 천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 천 위에 신성한 검은 돌을 올려놓고 네 부족의 각 대표들에게 천의 한 귀퉁이를 각각 잡고들어올리라고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도 돌을 제자리로 옮기는데 도왔다. 이리하여 무함마드는 그 논쟁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지도 모를 싸움의 위험을 종식시켰다.

## 다신론자들과 우상들

그가 살던 시대에 아랍인들은 여러가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랍인들은 용감하고 관대하고 충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협잡 때문에 언제라도 괴를 흘릴 준비가 되어있어, 사소한 불화로 빚어지는 끝없는 전투에 자주 휘말렸다. 그들은 힘없는 자와 고이들, 과부들을 존중할 줄을 몰랐고, 빈번히 폭음과 경박한 언행에 빠지곤 했다. 남자아이에만 중요한 지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많은 수가 여자아이를 원치 않았고, 여이를 낳자마자 땅속에 묻어버리는 사악한 관행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악한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다신론이 깔려 있었다. 다신론과 우상 숭배 의식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다. 한 분의 진정한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의 영원한 종교와 유산이 세월에 묻히고 잊혀져갔다. 해를 거듭하면서 카오바의 안팎에는 360여 가지의 우상과 거짓 신들이 세워졌고, 이들이 신들로서,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섬겨졌다. 모세와 예수의 추종자들마저도, 아브라함이 가르친 순수한 유일신 주의의 믿음과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서로다른 길을 가게 되었으며 여러 종파와 파벌로 나뉘었다.

그러나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이들과는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이 중 어느 것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자, 메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히라라는 산 근방의 외딴 동굴을 자주 찾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다. 거기서 그는 진리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그의 마음을 단련시켰다. 웅웅대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고독하게 우주의 예증을 응시하고 명상했다.

## 사도직

### 동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를 그분의 종복으로 부른 것은 이 동굴에서 그의 나이 사십이던 라마단 달의 어느 날 밤이었다. 이 날밤은 라일라 툴 까디르, 즉 힘의 밤으로 일컬어지며, 진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과 인류를 위한 빛이 되는 꾸란과 함께 내려왔다.



가브리엘천사가 무함마드에게 나타낸 산.



달빛이 하얗고 밝게 비추는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밤의 적막을 깨고, “읽으라”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함마드는 몸을 떨며, “나는 읽을 줄을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읽으라”라고 반복해서 내려지는 목소리가 그를 억누르자 대지조차도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읽을 줄을 모릅니다.” 그는 공포감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읽으라” 경이로운 소리가 또 다시 명령하였다. “무엇을 읽으란 말입니까?” 그 순간 갑자기 그는 풀려났다. 바로 모든 시간과 공간이 지연된 상태였다. 하늘과 땅이 합쳐져 평화를 이룰 때, 인류는 새로운 세벽의 문턱에서 있었다.

## 읽으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 그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읽으라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꾸란, 96:1~5)

꾸란의 이 절은 영광스런 꾸란의 전체 가운데서 처음 계시된 보석 같은 다섯 절로, 그 목소리는 천사가브리엘의 것이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내려진 신명과 진리의 영혼이었다. 선지자직의 임부가 하나님의 사도이자 세상에 내려진 자비 자체인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에게 이제 막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선지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이제 막 히라 동굴에서 그의 주님으로부터 첫 계시를 받았다. 산을 내달려 가는 그의 얼굴은 땀방울로 빛나고 심장은 강렬하게 뛰었다. 꾸란의 절이 아직 그의 영혼 안에 메이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계시인가, 무슨 말인가?” 그는 카디자에게 달려가 “나 좀 담요로 덮어주오, 덮어주오”라고 했다. 그가 방금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동안에도 카디자는 남편

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두렵소”라고 그가 말하자 그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나쁜 운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늘 친척들 모두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우시며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시고 불운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니까요.”<sup>3</sup>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카디자는 토라(구약성서)와 가스펠(신약성서)에 해박한 필경사이자 사촌인 와리카에게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를 데려갔다. 그날밤에 벌어진 일에 대해 다 듣고 난 후 노인 와리카는 주저하지 않고 확신에 찬 말투로 말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 보내셨던 바로 그 천사 가브리엘과 당신이 만난 것이 틀림없어요. 내 나이가 젊어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때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sup>4</sup> 이 노인은 이전의 성서들에 예언되어진 선지자께서 이제 도래하셨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길이길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식과 발달사에 새로운 세기, 즉 이슬람의 탄생을 열기로 운명지어진 마지막 선지자께서 이제 부름에 응하셨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를 처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의 아내 카디



성꾸란

3. 부카리, 제1권 1장 2쪽에 전한다.

4. 부카리, 제1권 1장 2쪽에 전한다.

자였고, 뒤이어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랑스런 어린 사촌알리가 그를 믿게 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완강히 반대하였으나 일부는 기꺼이 마음을 열어 부름을 받아들였다. 무함마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아부 바크르와 그의 시종 자이드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 후 한동안 꾸란은 계속 계시되었으며,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와 기쁘시기를)는 이슬람의 메시지를 공식으로 널리 전하며, 그에게 내려진 꾸란의 절들을 암송할 것을 명령받았다.

## 개막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라나이다 그 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되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걸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꾸란, 1:1~7)

하루는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와 기쁘시기를)께서 카오바 근처에 있는 사파라는 이름의 작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꾸레이쉬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어 묻기를 “무슨 일입니까?”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와 기쁘시기를)가 답하기를, “말해주십시오. 메카인들이여, 만일 내가 이 산의 건너편에서 군대를 보았다고 하면, 당신들은 내 말을 믿을 것입니까?” “진실로 믿을 것입니다” 모두들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으며 당신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는 한 명의 경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서운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나의 가장 가까운 친지인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되, 나 자신은 지

상에서건 천국에서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로운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다. 태양의 열기 아래 그들이 조용히 쥐 죽은 듯 서 있자, 무함마드의 삼촌인 이부라합이 “너는 없어야 해”라고 고함질렀다.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를 홀로 그 곳에 버려 둔 채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메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과 순종의 종교, 이슬람에 귀의하라는 부름을 들었다. 그러나 즉시 그들은 서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눈부신 진실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신앙심 깊은 자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비웃고 심지어 제정신이 아니라고까지 말하였다. 이 모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단 한 마디라도 나쁜 말로서 그들을 응수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최후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은 손님을 정성스럽게 접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최후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이웃을 영예롭게 하며, 하나님과 최후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은 선한 것만을 말해야 하나, 만일 사악한 것이라면 말하지 말고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sup>5</sup>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그 무엇도 그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친지들을 이슬람의 근본원리에 초대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숭배되어야 하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

5. 부카리, 제8권 72장 29쪽에 전한다.

## 유일하신 하나님

“일라가로되하나님은 단 한분이시고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그 분과 대등한 것세상에 없노라”

(꾸란, 112:1~4)

그가 사람들을 불러모아 유일한 하나님께 순종하라 외치면 외칠수록, 부족장들의 격노는 더해갔다. “뛰라고 그가 우리의 많은 신들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고 있다니, 정말 이상하군”하고 그들은 말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기적 같은 새 말씀 꾸란의 절들이 글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알려진 한 남자에게 내려 왔다는 것이다.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읽기와 쓰기를 전혀 배운 적이 없었고, 당시 아랍인들 중에서도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그에게 내려진 말씀들은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으로 보아서 얼마나 비길 데 없이 훌륭한 것인가.

메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꾸레이쉬 부족장들은 점점 분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위원회 모임에서 선지자의 삼촌이자 보호자인 아부 딸립에게 선지자를 저지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선지자가 사람들을 조상 대대로의 종교와 인습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이 소식을 듣자 감정이 동요되었다. 사랑하는 삼촌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침착하고 명료했다. “만일 사람들이 내 오른손에 해를, 내 왼손에 달을 올려 놓는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승리로 이끄실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sup>6</sup>

6. Ibn Ishag, 'The Life of Muhammad', 119쪽.

사랑의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안내 아래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무슬림의 수는 늘어났다. 이 최초의 고귀한 신앙인들은 올바른 복종의 길을 따랐다. 진실을 사랑하는 이들은 당시 컴컴한 이교도의 사회를 환히 비쳐 주었다. 세속적인 이익의 추구나 세속적 삶의 목표와 야망은 영원한 삶과 지혜의 추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였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께서 이르시기를, “지식을 추구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쉽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sup>7</sup>

## 거부와 보이코트

그러나 무슬림들은 그 시작과 함께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수단도 지위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어려움을 당했다. 그들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조롱도 소용없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신앙인들의 신체를 때리고 고문을 자주 가하곤 했다. 무슬림들에게 돌과 오물을 던졌다. 백명 가량의 무슬림들은 메카를 떠나 가장을 포기하고, 이웃한 기독교 국가 아비시니아(지금의 에티오피아)로 피난처를 찾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뒤에 남은 무슬림들에게는 박해가 더 심해졌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아비시니아인 흑인 노예 빌랄은 잔인한 주인에 의해 뜨거운 모래 위에 사지를 쭉 뻗고 가슴에 크고 무거운 바위가 놓여지는 고문을 당했다. “이제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빌랄을 괴롭혔다. 그러나 아무리 고문을 많이 가한들 그의 신앙심을 흔들 수는 없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슬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7. 무슬림에 전한다.

이리하여 메카의 족장들은 새로운 정책을 세웠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와 그의 추종자들은 강제로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살게 하고, 그들에게는 식량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제 식량과 물이 끊긴 채 길고 긴 고통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수일간 심지어는 수주 동안 계속 굶어야만 했다. 이 저항은 꾸란의 계시가 시작된지 칠년이 되는 해에 시작되어 삼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박해자들 가운데 일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이 가한 해악을 견딜 수 없어 결국 박해는 점차 약해져 갔고 식량금지령도 폐지되었다.

또 다시 사람들은 선지자 (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중간 키에 아주 미남이었다. 검은 머리에 턱수염, 그리고 웃을 때 하얗게 빛나는 이를 가졌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깊이 인상을 주는 것은 그의 인품과 완벽한 행동이었다. 그의 말씨는 언제나 지혜와 지도로 가득했다. 이제 그의 가르침의 비범한 영혼이 아라비아의 부족 사회의 관습과 인습을 흔들고 바꾸어 나갔다. 그가 이르기를: “당신의 형제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건 나쁜 일을 당하고 있건 간에 그를 도우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기를,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저는 그가 나쁜 일을 당할 때는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그가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를 돕는 길입니다.”

무함마드의 친절하고 자비로운 천성은 어디에도 견줄 데가 없었다. 그는 자주 어린아이들 무리를 지날 때마다, 손으로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때때로 그들과 순진한 놀이를 함께 하기도 했다. 그가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백 가지 자비 중에서 한 가지만이 하나님께서 불로서 창조하신 진, 인간, 동물, 새, 곤충에게 내려졌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그것으로 서로에게 자비를 보여주며, 그것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흔 이홉



무슬림 여성

가지의 자비를 지니시는데, 부활의 날 그분의 종복들에게 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sup>8</sup>

그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명예를 가져다주었다. 파격적으로, 이슬람은 여성들을 그 시대의 어느 사회에서도 견줄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위로 승격시켰다. “천국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발아래 놓여 있습니다.”<sup>9</sup> 그가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지의 길로 나아갔다.

## 기적의 밤의 여행

선지자직 십년째,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그의 생애,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의 삼촌이자 그를 입양하여, 많은 가족적인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부딸립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삼촌의 죽음은 사랑하는 아내 카디자가 세상을 떠난지 얼마안가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의 슬픔을 부채질하기라도 하듯, 그가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하러 찾아갔던 타이프에서 그 곳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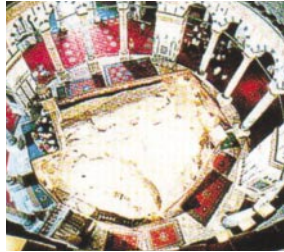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고도 고귀한 명예를 받은 사람 중의 하나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밤의 여행이라고 불

8. 부카리, 제3권 43장 373쪽에 전한다.

9. Ahmad, Nasa' i 그리고 Bayhaqi, Mishkat al-Masabih, 제1권 2장 187쪽에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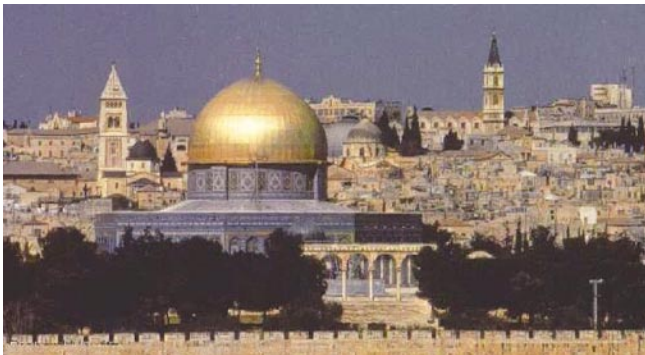


린다. 그 특별한 밤,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 를)에게 찾이와 잠을 깨웠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은 눈부시게 하얀 피조 물, 알부라끄라고 불리는 것 위에 무 함마드를 태워주어 곧장 빛의 속도로 날아가 머나먼 꾸두스(예루살렘)의 예배보는 곳인 알-악사 성원에 데려 다 주었다. 그곳 꾸두스(예루살렘)의 심장, 축복의 땅에서 무함마드(그 분 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이전의 선지자들의 한 무리를 만났다. 그들 은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 를) 뒤로 모여들어 그가 예배를 집행하였다.



등근 천장 아래에서도 무함마드가 일곱 개의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한 바위가 있다.

거기서, 가브리엘은 그를 데리고 일곱 개의 천국을 통과해 올라가면서 우주의 알려지지 않은 신비와 하나님의 위대한 예증의 몇 가지를 보여 주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한 사



꾸두스(예루살렘)에 있는 알-악사성원

람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는 남자와 여자들의 영혼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혼에게는 미소를 지으며, “건강한 몸으로부터 착한 영혼이 나온다”라고 말하며, 왼쪽에 있는 영혼에게는 인상을 찌푸리며, “나쁜 몸으로부터 사악한 영혼이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기를 “가브리엘, 그가 누구입니까?” 하자 가브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담이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의 자손들입니다. 오른쪽의 사람들은 천국에 거주할 사람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불에 거주할 사람들이죠.”<sup>10</sup>

그 후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가브리엘과 함께 올라가면서 계속 이어지는 각각의 하늘에서 각기 다른 선지자들을 만났다. 예수, 요한, 요셉, 아론, 모세(그들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바로 그들이다. 마침내 일곱 번째 천국에 도착했다. 거기 불멸의 저택 입구에 한 남자가 옥좌에 앉아 있었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가 말했다. “저토록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분이 바로 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sup>11</sup> 그 후 가브리엘은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에게 천사의 빛의 화려한 이름다움을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시드라-울-문따하’라는 천국의 끝 경계선의 시드라 나무에 다다랐는데 이곳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의 색조에 둘러싸여 있었다.

## 시드라 나무

“그의 마음은 그가 본 것에 대하여 거짓함이 없더라 그래도 너희는 그가 본 것에 관하여 논쟁하고 있는노 실로 그는 다시 한 번 그를 보았느니 마지막 시드라 나무 옆에 있었더라 그곳 가까이에는 영주할 천국이

10. 부카리, 제1권 8장 211-214; 무슬림, 제1권 309쪽 322번에 전한다.

11. 부카리, 제1권 8장 211-214; 무슬림, 제1권 309쪽 322번에 전한다.

있으니 보라 시드라 나무가 가리워지매 그(무함마드)의 시선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계를 넘지도 않더라 실로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증들을 보았노라”

(꾸란, 53:11~18)

## 이주

### 매일 다섯번의 예배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와 기쁨을)는 하나님의 경계의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가장 최고의 정신적, 신체적 절정이 바로 이 날 밤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슬람의 두 번째 원칙, 하루 다섯번의 예배를 부여하신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예전의 어느 선지자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영광으로 전 세계가 무슬림들의 예배 보는 장소가 된 것이다. 이 밤이 바로 ‘알-이스라 왈 미라즈’ 즉 밤의 여행과 승천으로 불린다. <sup>12</sup>

다음날 아침 그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이 기적의 여행 이야기를 들은 불



이슬람 역사에있어서의첫성원인 쿠비성원.

12. 꾸란 17장 1절을 참조.



쿠비 성원의내부 모습

신자들은 이제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를 한층더 조롱하고 비웃을 건수가 생겼다고 기뻐 날뛰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점쟁이, 시인, 이제는 거짓말쟁이라고 불려댔다. 박해는 점점 심해졌고,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와 그의 동료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 위험에 처해 있었으므로, 결국 조용히 메카를 떠날 준비를 하였다.

## 메디나



250마일 거리에 있는 야스람이라는 도시로부터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표들이 그들의 도시에서 무슬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며 환영하였다. 특히나 그들은 선지자가 자신들 부족간의 전쟁과 평화로 찢겨나간 그 도시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랐고, 선지자(그 분에

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히즈라, 즉 이주로 불리는데, 이는 이슬람 역사의 전환점으로서, 이 날부터 이슬람력이 시작된다.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이로써 탄생했으며, 야스랍은 선지자의 도시 ‘메디나-툼나비’라고 불린다.



사도 무함마드와 친한 친구인 아부 비크르가 메디나로 이주하기 전에 잠시 몸을 피하였던 싸우르산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는 십삼년간의 이슬람 선교활동과 아랍 이교도의 쓰라린 박해를 겪고 난 후에야, 메카를 떠나 무슬림들의 작은 무리와 함께 메디나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았다. 이리하여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삶과 임무에 있어 두 번째 커다란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메디나에 있는 사도 무함마드의 성원. 동근 천장은 그의 집이 서있었고 그가 묻혀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 최초의 헌법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메디나의 최고 수장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슬람은 꽃을 피우게 된다. 새롭고 빛나는 정의의 사회질서가 태어났다. 성원(마스지드)이 그 기반이 되었다. 여기서 여러 신앙과 인종의 세계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향한 이슬람이 인간 권리와 자유를 영원히 지키는 최초의 헌법과 헌장의 모습으로 갖추어졌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자유, 안정, 정의를 보장하였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비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또한 외부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방어와 안전이, 각종 죄와 비도덕적 행위의 철폐와 정의가 주어졌다.<sup>13</sup>

## 이주자들과 조력자들

“믿음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이들과 그들을 보호하여 주는 그들이 진실한 신앙인들이니 그들에게는 관용과 자비로운 양식이 있을 것이라”

(꾸란,8:74)

## 자선과 단식

자비는 이 새로운 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탐욕과 이기심은 낮설어지고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가 이르시기를: “두사람 사이에서 정의를 취하는 것이 자비요, 짐을 진자를 도와주고 보따리를 들어주는 것이 자비요, 질문하는 자에게 부드럽게 대답해 주는 것이 자비요, 가

13. Afzalur Rahman, 'Encyclopedia of Seerah', 제1권 3장 29쪽: Muslims Schools Trust(1981)

14. al-Nawawi's Forty Hadith, 26번

사나 둘 같이 사람의 통행에 불편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자비요, 형제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 자비입니다.”<sup>14</sup>

한 번은 어떤 남자가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에게 찾아와서 양 몇 마리를 달라고 구걸했다. 선지자는 두 언덕 사이를 오가며 풀을 뜯어먹고 있는 많은 양들을 전부 그에게 주라고 말했다. 그 남자가 마을로 내려와서 말하기를: “오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슬람을 받아들이시오. 무함마드는 그렇게 엄청난 것을 선뜻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sup>15</sup>

여기 메디나에서 이슬람의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기본 원칙이 세워졌다. 무슬림들은 자카트<sup>16</sup>이라는 세금을 냄으로써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라마단 달에 단식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선지자(그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재혼하였다. 그는 이미 여러번 결혼을 했으나 이부바크르의 딸인 이이사를 제외한 그의 모든 아내들이 주로 죽거나 순교한 무슬림들인 과부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첫 동반자이자 사랑스런 아내였던 카디자에 대한 특별한 추억과 자리가 남아 있었다.

## 성서를 받은 민족

메디나에는 많은 수의 유대인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선지자의 출현이 이들의 구약성서(토라)에 이미 예언된 만큼, 무슬림들은 이미 이들 성서의 백성들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

15. 무슬림, 제4권, 57289번들에 진한다.

16. 꾸란 2장 177절, 9장 60절을 참조.

17. 꾸란 2장 188-187절을 참조.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대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며, 그의 입에 나의 복음을 주어내가 명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리라.”

(신명기, 18:18)

구약성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가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 누가 될 수 있겠는가? 누가 선지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보다 더 모세와 비슷할 수 있겠는가?

예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었다.

“만일 내가 멀리 떠나지 않으면, 편안케 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리니,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그가 당신들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을 이야기할 뿐 스스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16:7, 16:13)

이 때까지 무슬림들은 성서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카의 카오바를 향해 그들의 얼굴을 돌리라는 부름을 받았다.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 방향을 바꾼 이 역사적인 사건은 새로운 무슬림 국가에 주어진 영예와 특징을 상징한다.



카오바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의 최초의 신앙으로 복귀함에 따라, 이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에 의해 처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향해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성서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메카의 족장들 또한 괴로워하였다. 그들은 새로이 건설된 무슬림 공동체를 없애기 위해 여러 계획을 짜고 있



었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수년간의 박해와 고문을 겪어낸 후, 하나님께 선는 마침내 무슬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허락하셨다.

## 전쟁 허락

“침략하는 자들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나니 모든 잘못은 침략자들에게 있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노라”

(꾸란, 22:39)

## 바드르 전투

그 결과는 히즈라(이주) 이후 두 번째 해의 라마단 달에 일어난 바드르 전투에서 입증되었다. 메카의 군대는 무슬림군의 세 배가 넘는 천명의 숫자로 공격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대로, 무슬림들은 빛나는 완승을 거두었다. 무슬림들에게 박해를 가하곤 했던 메카의 족장들 일부는 전사했다. 다른 이들은 포로로 가뉘지거나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되었다. 역사상 최초로 전쟁 포로들은 승리자와 마찬가지로 먹여지고 재워졌으며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았다. 이 전쟁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힘과 용기가 메카와 그 동맹군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메카인들은 이슬람을 파괴하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전투에 전투를 거듭하면서, 무슬림들은 그들이 어떤 공격이라도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신앙인들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우흐드 전투 바로 다음 해에도 꾸레이쉬들은 다시 한번 무슬림들을 무찌르기 위해 총공격을 가해왔다. 그들은 베두인 사람들(사막의 유목민)과 유태인들 심지어 메디나 안의 위선자들<sup>18</sup>과 함께 음모를 계획했다.

18. 꾸란, 58장 14절을 참조.



우후드산

히즈라 5년에 만명도 넘는 군대가 메디나를 향해 진격해왔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페르시아인, 살만의 충고에 따라 무슬림들은 방어막으로 메디나도시 주변에 넓은 참호를 팠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도 이 작업에 몸소 참여했다. 한 달 동안이나 무슬림들의 방어막을 뚫지 못하자, 이교도 군대는 참을성을 잃어갔다. 점차 불만이 동맹군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스스로의 다툼과 혹독한 기상 상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막사를 거두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는 이슬람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이후 메디나는 다시 침략당하지 않았다.

### 후다이비야의 휴전

히즈라 6년에 메키인들과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 사이에 휴전 협정이 맺어졌다. 그 기간이 꾸레이쉬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슬람에는 하나의 승리가 되었다. 일컬어 후다이비야 협정이라 불린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평화의 시기에 비무슬림들의 많은 수가 자신들을 위해 이슬람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이는 계기를

가졌다. 결국 엄청난 수의 메카인들과 부족민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어느날, 먼 곳에서 곱슬머리를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에게 찾아와 이슬람에 대해 질문하였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밤낮으로 다섯 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남자가 물기를 “더 있습니까?” 선지자가 답하시기를: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더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라마단 달에는 해가 있는 동안 단식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밖에 또 다른 단식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답했다. “없지만, 원한다면 더 단식해도 좋습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의무 자선금인 자카트를 내야 합니다.” 먼데서 온 사람이 물었다. “자카트 말고 더 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께서 이르시기를 “스스로 가진 것을 더 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없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말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이보다 덜도 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께서 “만일 그가 자신이 한 말에 진실하다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셨다.<sup>19</sup>

## 지배자들에 대한 부름

이 기간동안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당시 세계를 지배 하던 두 강대국,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을 포함한 많은 군주들에게 그 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헤레클레스 황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선지자의 봉인이 있는 서신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로부터 비잔틴 황제 헤레클레스에게, 진실의 안내를 따르는 사람에게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당신을 이슬람으로 초대합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평화와 번영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두 배로

---

19. 부카리, 제9권 2장 39쪽에 전달한다.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일 거절한다면, 백성들의 죄가 당신에게 내려질 것입니다”<sup>20</sup> 라고 편지는 쓰여 있었고 꾸란의 절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 공동의 조건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이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오라하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주님과 비교하지 말라 이르되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임을 지켜보라 말하라”

(꾸란, 3:64)

비록 황제가 이것이 실로 성서에 예언되었던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으나 그의 신하들에 대한 우애로 그 메시지를 저버렸다. 이리하여 슬프게도 운명의 바람은 비진된 제국을 이슬람으로부터 떼어놓았다.

## 메카 정복

### 메카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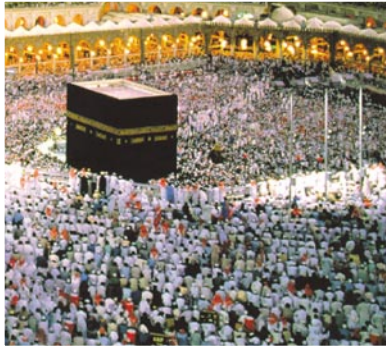
그러는 동안 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의 세력이 확대되어 갔다. 메카인들과 휴전협정이 있는지 2년 동안 꾸레이쉬 군대는 여러번 공격을 감행했는데,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약 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메카로 진격하였다. 거기서 일어난 것은 종교 정복 역사상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된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그 누구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수도를 정복했다. 그는 떨고

---

20. 부카리, 제1권 1장 11쪽에 전달한다.

있는 적들 사이를 부드럽게 고개 숙인 채, 낙타를 타고 산중에 있는 성문을 통과했다.

놀랍게도 아직은 이슬람에게 쓰게만 느껴지는 그의 모든 적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모두에게 사면이 선포되었다. 이날은 승리의 날이었으며 선지자 삶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카으바

## 무너진 우상

메카 정복은 끝났다. 이슬람의 적들은 항복했고 용서받았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자비로운 인품과 행동을 증명하듯, 메카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카으바의 신성한 곳에 입성하였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아랍인들이 머리 숙여 숭배해온 거짓 우상들과 돌들 360여 개가 있었고 그 하나 하나 모두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명령으로 부수어져 가루가 되었다. 이리하여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우상의 상징들이 없어진 것이다.

마참내 이 집 카으바, 고귀한 선지자 아브라함과 그의 장남 이스마엘이 세운 카으바가 진실로 진정한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숭배하도록 순수해지고 재정립된 것이다.

## 진리의 종교

“그 분이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모든 종교 위에 있도록 하시었으니 불신자들이 또한 증오하더라”

(꾸란,9:33)

이제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꾸란의 계시를 인류에게 알리기 시작한지 21년째 접어들었다. 무함마드의 사명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는 새롭게 무슬림 세계의 수도로 성장한 메디나에 거주하였다. 아라비아 전역에서 대표단들이 찾아와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 휘하의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선지자는 신앙인들을 여러 지역으로 보내 그 곳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아라비아와 주변국이 모두 그의 휘하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복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는 마치 평범한 여느 남자들처럼 스스로 신발을 가져오고, 자기 옷을 기우며, 가족을 부양하였다.

## 순례의 끝

7세기 히즈라 10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현세에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 그 해에 그는 이슬람의 마지막이자 다섯 번째 근본 원칙인 하지(성자순례)를 마쳤다.

아라파트 평원<sup>21</sup> 위로 작렬하는 태양 아래,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그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남겼다.

“오 백성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 곳에서 해가 바뀌면 여기

---

21. 메카에서 15마일 떨어진 곳.

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목숨과 재산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스런 곳, 이 성스런 날, 이 성스런 달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 진실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이 올바른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고리대금이라면 모두 철폐되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자본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쁜 일에 빠질 염려도 없습니다.

무지한 이교도 시절에 흘렸던 피에 대한 복수는 아직 갚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땅에서 결코 다니는 승배 받지 못할 사탄은 이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사소한 일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경계하여 여러분의 종교를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천국과 지상을 창조한 바로 그 날처럼 시간은 흐릅니다. 일년에는 열두달이 있으며 그중 네달이 성스런 달로 전쟁이나 싸움을 금합니다.

오 남성들이여, 여러분들은 아내들에 대해 권리가 있고 그녀들도 여러분들에 대해 권리를 갖습니다. 아내들은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과는 친분을 맺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이를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아내를 집에 가두고 가벼운 벌을 주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준다면, 그들은 친절히 부양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여인들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동반자이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로 여기며 그분의 허락에 의해서만 아내들로부터 즐거움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 백성들이여, 그러므로 진



이리파트평원

실로 잘 들어 생각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뒤에 남기고 떠납니다. 바로 꾸란과 나의 본보기인 순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따른다면 결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 백성들이여, 부디 잘 들어주

십시오.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모두에게 한 형제이며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하나의 형제애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가 가까이 주는 것만을 취하고, 스스로 잘못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sup>22</sup>

그리고 나서 선지자 (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하늘에 얼굴을 돌리고 난 후,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건대, 나는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였나이다.” 바로 이 순간 꾸란의 마지막 절이 계시되었다.

## 이날

‘오늘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신앙으로 만족케 하였노라’

(꾸란, 5:3)

## 사도의 죽음

몇 달 후 63세의 나이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셨다. 선지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메디나에 있는 집에서 운명을 다했다. 약간의 소지품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22. 무슬림, 제2권 2803번에 전달한다.



세상을 전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1디나르조차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의 영혼은 마치 처음 전해졌을 때처럼 오늘날 아직도 또렷하게 살아 있으며 사람들은 그의 삶과 선지자직 임무가 이론기적과, 아름답게 성취된 그의 목표를 증언할 것이다.

라 일랄하 일랄라 무하마단 라술룰라  
(하나님을 제외한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 기도

“주여 저희는 주님을 믿으려는 믿음의 부름을 듣고 믿었나이다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속죄하여 저희가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여주소서.”

(꾸란,3:193)

“오,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그들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와 기드시기쁨)와 그의 가족에게도 축복을 내리소서. 진실로 당신은 찬미요 영광이시나이다.”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한 그대의 주님을 찬양하라 그 분은 그들이 묘사한 것과는 관계가 없노라 선지자들 위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꾸란,37:180~182)



시도 무함마드의성원

## ● 선지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말씀들

- ① 믿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한 몸처럼 사랑과 자비와 친절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체의 한부분이 아플 때 몸 전체가 열어나고 쉴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② 믿는 자들 중 가장 완벽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품행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아내에게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스나 아흐마드와 티리미지가 전함)

- ③ 자기의 형제를 자기 자신만큼 사랑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완벽한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④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에게 자비를 보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티리미지와아부 다우드가 전함)

---

1. 선지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말씀들 끝에 언급되고 있는 부카리(al-Bukhari), 무슬림(Muslim), 티르미지(al-Tirmizi), 모스나 아흐마드(Mosnad Ahmad), 아부 다우드(Abu Dawd), 이븐 마자(Ibn Majah), 앳-타바라니(at-Tabarani)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저명한 학자들의 이름 내지는 별명이다.

- 5 여러분의 형제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 자비입니다.  
(티르미지가 전함)
- 6 하나님과 마지막 날(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은 이웃을 잘 대해야 합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7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나 재산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들여다 보십니다.  
(무슬림이 전함)
- 8 일꾼의 땀이 마르기 전에 임금을 주십시오.  
(이븐마자가 전함)
- 9 길을 걸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한 우물에도착하여 그 우물 아래로 내려가 갈증을 채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마리의 개가 혀를 늘어뜨리면서 갈증을 삭히기 위해 진흙을 핥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도 내가 느꼈던 것처럼 갈증을 느끼는구나.” 그는 우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의 신발 안에 물을 담아 개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기뻐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께서 다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여,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분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을 베풀면 보상이 따릅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10 어떤 사람이 선지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께 와서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사람들 중에서 저는 누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남자

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  
 화가 깃드시기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당신의 어머니  
 입니다. 그 남자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선지자(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  
 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11 어려운 사람에게 부채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주거나 부채를 탕감하  
 여 주는 사람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무슬림이 전함)

- 12 내세의 가치와 비교해 본 현세의 가치는 여러분의 손가락을 바닷물  
 속에 담갔다 꺼낸 후 손가락에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슬림이 전함)

- 13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비로운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  
 조물들에게 자비로우시다고 전합니다.

(무슬림이 전함)

- 14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15 이웃이 굶고 있는데 배불리 먹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앗-타바라니가 전함)

- 16 상대를 쓰러넘어뜨리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며 진실로 강한 자는 끓  
 어오르는 분노의 순간에 자제하는 자입니다.

(부카리가 전함)

- 17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티르미지가 전함)

- 18 신앙인은 다른 신앙인과의 관계를 위해 다음 여섯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병 중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고, 그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며, 초대를 받으면 방문하는 일입니다. 또 만났을 때 인사하고, 재채기를 하면 자비를 빌어주며, 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를 막론하고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19 가장 큰 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와 부모님에 대한 불효, 자살행위와 그리고 위증죄입니다.

(부카리가 전함)

- 20 신앙인 가운데 믿음이 가장 독실한 사람은 그의 아내에게 가장 예절 바르고 친절한 남자입니다.

(티르미지가 전함)

- 21 남성은 다음 네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여성의 재물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 여성의 가족관계를 보고 결혼하는 경우, 여성의 미를 보고 결혼하는 경우 그리고 여성의 종교를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복 받을 결혼은 여성의 종교를 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22 술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해악입니다.

(타브라니가 전함)

- 23 많은 양으로 취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적은 양으로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한 잔만 혹은 한 모금만 마신다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븐마자가 전함)

- 24 이담의 자손을 위해 황금으로 가득 찬 계곡이 있더라더 인간은 또 다른 계곡을 원할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없을 것입니다. 사망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이 종료될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무슬림이 전함)

- 25 무슬림에게 찾아드는 어떤 고민이나 병이나 걱정, 근심, 어떤 상처나 슬픔, 비록 가시에 찔린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죄를 거두어 주십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26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가 고인의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고인의 가족과 재목과 업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들운 돌아오고 한 가지만 남습니다. 고인의 가족과 재물은 다시 돌아오고 그의 업적만 고인과 함께 남게 됩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 27 어느 날 하나님의 사도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을 때 새하얀 옷을 입고 새까만 머리에 여행을 한 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선지자 앞에 앉았다. 그의 무릎을 선지자의 무릎과 맞대고 그의 손은 선지자의 허벅지에 얹고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무하마드여, 이슬람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사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슬람이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고백한 후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라미단 달 단식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나야 합니다.' 이에 그가 말했습니다: '바르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고서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것에 대하여 바르게 말했다고 말한 그가 수상스러웠다. 그리고서 또 질문을 하였다. '신앙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성서들과 사도들, 마지막 날과 운명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말했습니다. '바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였다. '참신앙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되 당신이 그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가 종말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선지자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내가 질문한 당신보다 더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종말의 징조에 관하여 물었

고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낳고 벌거벗은 가난한 목동들이 고층건물을 경쟁적으로 건축할 것입니다.’ 그런 후 그는 서둘러 떠났고 저는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선지자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마르, 질문했던 그를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이슬람을 가르쳐준 실체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무슬림이 잔함)

- 28 하나님은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신 후 그것들을 설명하시니라.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을 세웠다가 실천하지 아니한 그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선행으로 기록하여 두시며,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을 세운 뒤 그것을 실천하였을 경우 하나님은 10배에서 700배 혹은 그 이상의 선행으로 기록하시니라. 그러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행하지 아니한 그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성행으로 기록하여 두시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한 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나쁜 행위로 기록하시니라.

(부카리와 무슬림이 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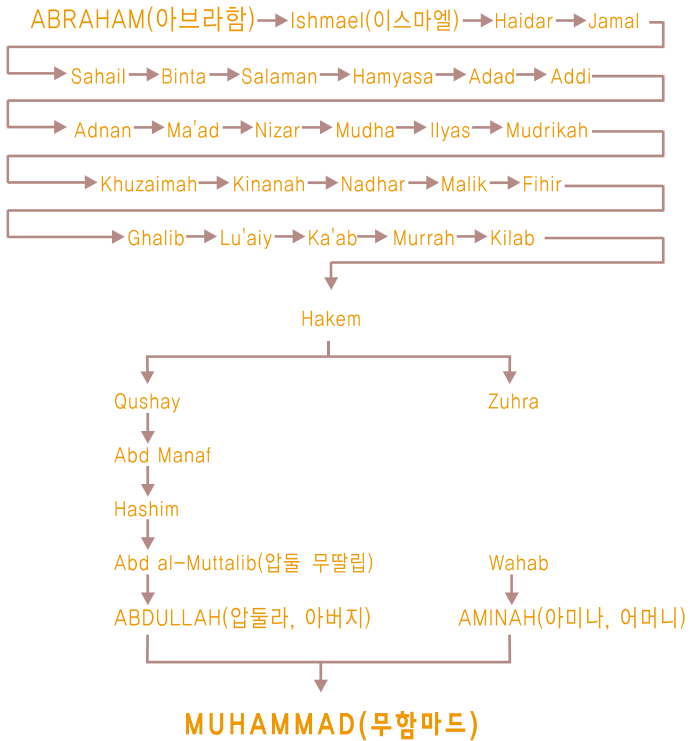
- 29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지손이여, 너희가 기도하고 나에게 요구할 때 나는 너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고 개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담의 자손이여, 너희가 나를 어느 무엇과도 비유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만큼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티르미지가 전함)

- 30 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주님은 한 분이시며 인류 모두가 아담 한 사람의 자손입니다.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며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붉은 혈색인(붉은 혈색을 가진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며 흑인이 붉은 혈색인 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심만이 우월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스날 아흐마드가 전함)

## ●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계도





## 선지자 무함마드의 삶의 연표

### 이슬람력/서력

- 570 무함마드의 탄생.
- 576 어머니 아미나가 사망 할아버지 압둘 무딸립 밑에서 성장
- 578 삼촌인 아부 딸립이 밑에서 성장.
- 582 아부 딸립과 함께 그는 시리아로 첫 교역 여행길에 동반
- 595 카디자와 결혼. 메카 인근의 「하라」 동굴에서 명상 시작.
- 605 카이바가 재건축할 때 무함마드는 도움을 주었음.
- 610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임을 자각.
- 613 무함마드 메카에서 이슬람 포교 시작.
- 615 무슬림들은 아비시니아로 첫 이주함
- 616 메카인들에 의해 무함마드의 가족과 추종자들에게 박해가 너무 심해짐
- 619 무함마드의 숙부 아부 딸립과 처 카디자 사망.
- 621 밤의 여행과 승천.
- 621 메카를 떠날 준비.
- 1 / 622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함. 이슬람력 원년.
- 2 / 623 예배방향을 이전의 꾸두스(예루살렘)의 알-악사 상원에서 메카의 카오바로 변경.  
메카군과의 바드르 전투에서 이슬람군 승리.
- 4 / 625 메카군과의 우흐드 전투 이슬람군 간신히 패배.
- 5 / 627 메카군과의 칸다끄 전투. 메카군이 메디나 포위 출고 철군함.
- 6 / 628 메카와의 10년간의 정전 및 메카 순례 허용하는 내용의 후다이비야 협정.
- 7 / 629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을 포함한 많은 군주들에게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한다는 서신을 보냄.
- 8 / 629 메카의 정복. 무함마드 메카에 무혈입성하여 360여개 우상을 파괴
- 9 / 630 역사상 최초로 아라비아 반도 통일.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신정일치(神政一致) 국가 창설.
- 10 / 632 무함마드가 메카 순례하고 마지막 고별연설. 꾸란의 완성.  
무함마드 63세를 일기로 사망.

## ● 이슬람 용어 사전

- **가브리엘(Gabriel)**: 계시의 천사. 예수와 무함마드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를 전하는 천사.
- **꾸레쉬(Quraysh)**: 아라비아의 부족 중의 하나. 무함마드는 메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활거한 꾸레쉬 부족의 바누 하섬가(家)에서 태어났다.
- **꾸란(Qur'an)**: 꾸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그 자체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사도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기록이다.
- **끼블라(Qibla)**: 무슬림의 예배 방향
- **나비(Nabi)**: 선지자
- **라미단(Ramadan)**: 이슬람력 9월, 단식을 행하는 달.
- **라술(Rasul)**: 사도. 성서를 가져온 선지자를 지칭.
- **메디나(Madinah)**: 옛 이름이 야스립이었던 메카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도시.
- **메카(Makkah)**: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의 한 고대 도시이다. 도시 안에 카오바가 자리잡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무함마드가 태어난 당시에 메카는 예멘에서 시리아로 교역할 때 들리는 또한 종교적 도시가 되었다.
- **무하지룬(Muhajirun)**: 메카 이주민. 선지자 시절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메카 무슬림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

- **무함마드(Muhammad)**: 하나님의 인류에게 보내신 마지막 사도이다. 그는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났다. 나이 마흔 살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을 전세계로 퍼져 나가셨다.
- **무슬림(Muslim)**: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 **바드르 전투(Battle of Badr)**: 624년 3월 무함마드가 이끄는 300여명의 이슬람군은 메디나 서남쪽 32km 지점에 있는 바드르에 매복하고 있다가 귀향하는 메카의 대상을 기습하였다. 이때 원군으로 급하된 950여명의 메카군을 격파함으로써 전투는 이슬람군의 승리로 끝났다.
- **사움(Saum)**: 라마단 달의 단식. 1년에 한 번 라마단 달 동안 단식한다. 성인인 모든 무슬림들이 행해야 할 의무이다. 새벽의 여명부터 일몰까지 단식한다. 어떤 음식물, 음료도 금하며 성적관계도 금지된다. 단식은 무슬림들로 하여금 의지력을 키우며,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의 몸을 정화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에도움을 준다.
- **사하바(Sahabah)**: 선지자의 교우들.
- **샤하다(Shadah)**: 신앙 선언 그 내용은 “하나님(알라)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심은 선언한다”라는 증언사(證言詞)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다.
- **수라(Surah)**: 꾸란의 장. 꾸란은 총 114수라로 구성.
- **순나(Sunnah)**: 사도 무함마드의 삶과 언행의 모범. 이것은 무슬림들을 위한 두 번째의 권위적 지침이다.
- **살라(Salah)**: 예배. 예배는 하루에 다섯 번 수행해야 하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로 예배자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리이다. 이슬

람에는 위계질서적 권위가 없기에 사제가 없다.

- **아단(Adan)**: 알림. 이 알림의 의도는 멀리 있거나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이슬람의 상징으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예배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 **아흘알-바이트(Ahl al-Bayt)**: 선지자 가문 사람들.
- **아흘 알-키타브(Ahl al-Kitab)**: 구약과 신약을 믿는 신앙인들. 일반적으로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를 지칭.
- **안사르(Ansar)**: 메디나 후원자. 선지자 시절 메카 무슬림 이주민들을 도와준 메디나 무슬림들을 일컫는 말.
- **알라(Allah)**: 아랍어로 하나님. 무슬림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그 분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다고 믿는다. 그 분은 태어난 적이 없고 결코 죽지 않으신 분이라고 믿는다.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아랍어로 아랍권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 **야스립(Yathrib)**: 아라비아에서 메카의 북쪽에 있는 도시.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이 메카에서 야스립으로 이주한 후 이 도시의 이름은 '메디나-툰나비 즉 선지자의 도시'라고 불린다.
- **우흐드 전투(Battle of Uhud)**: 메디나 근교 우흐드산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이슬람군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전투이다.
- **움마(Umma)**: 무슬림 공동체
- **이스라와 미라즈(Isra' and Mi'raj)**: 야간여행과 승천. 승천은 무함마드가 선지자의 지위에 있던 동안 열 번째 해, 라잡달의 스물 일곱 번째 날에 일어났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메카에 있는 하람성원에서 출

발하여 꾸두스(예루살렘)에 있는 알-와사 성원을 경유한 후 일곱번째 하늘 끝까지 간다. 가브리엘은 그를 아담, 요한, 예수, 이드리스, 이룬, 모세가 머무르는 하늘로 그를 데려갔다. 일곱번째 하늘에서 그는 아브라함을 만났다.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으로 보내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격자로서 특별한 경험을 가졌다. 그는 일곱 하늘을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하늘들의 이름다움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예배를 위한 명령을 내려주셨다. 같은 날 밤에 선지자는 메카로 되돌아왔다.

- **이슬람(Islam)**: 아랍어로 이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그분의 인도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과의 평화를 획득함을 뜻한다. 보편종교는 대체로 종교의 창시자(불교나 기독교)나 소속 지명(힌두교) 혹은 인종명(유대교)을 따서 이름을 짓는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 종교의 고유이념인 순종과 평화의 뜻을 그대로 담은 '이슬람'으로 명명한다고 경전 꾸란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양에서 부르는 '마호메트교'나 동양에서 쓰는 '회교(回教)나 하는 이름은 적절치 않으므로 삼가야 한다.
- **일신론(Monothelism)**: 이슬람은 단순히 일신론 즉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 **자발알-누르(Jabal al-Nur)**: 빛의 산. 무함마드가 이 산에서 천사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계시를 받았다. 이어 23여년 동안 이어진 이 계시가 집대성된 것이 꾸란인 것이다.
- **자카트(Zakah)**: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헌금. 이슬람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카트이란 정화와 성장을 뜻한다. 자카트는 의무 헌금으로 자발적인 자선과는 다르다. 자카트는 년 단위로 행해진다. 그것은 그들의 부를 정화시켜준다. 모금된 기금은 가난한 자들, 과들, 그리고 사회에서 궁핍한 자들에게 배급된다. 자카트는 집, 자동차, 그리고 직업적 도구들을 제외하고 축적된 재산의 2.5%를 헌금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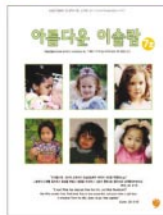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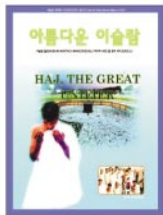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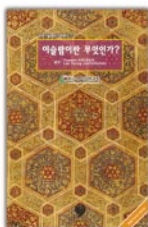
- **자한남(Jahannam)**: 지옥. 악인(惡人)은 영원히 고통을 당할 장소.
- **잔나(Jannah)**: 천국. 성인(聖人)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영원함 즐거움을 누릴 장소.
- **진(Jinn)**: 영마. 인간처럼 호흡로서가 아닌 불로 창조된 피조물.
- **카디자(Khadijah)**: 사조 무함마드의 첫 부인. 이슬람을 개종한 첫 사람.
- **카오바(Ka'bah)**: 카오바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데, 이 건물은 원래 아담에 의해 건립된 제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인류가 이 곳을 방문하도록 명령하셨다. 카오바는 경배의 장소일 뿐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예배를 할 때 카오바로 방향을 정한다.
- **칸다끄 전투(Battle of Khandak)**: 서력 627년에 만명도 넘는 메카군이 메디나를 향해 진격해왔으나 무슬림들은 방어막으로 메디나 도시 주변에 넓은 참호를 팠다. 한 달 동안이나 무슬림들의 방어막을 뚫지 못하자, 메카군이 참을성을 잃어갔다. 결국 막사를 거두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 **쿠트바(Khutbah)**: 금요일 합동예배의 설교.
- **하디스(Hadith)**: 사도 무함마드가 일생에 걸쳐 이슬람을 선교하는 동안에 보여주었던 그의 행동 및 사례들을 수록 편찬한 '언행록'을 말한다. 사도 무함마드 생존시 그의 교우들은 선지자의 말과 행동 및 사례들을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이를 선지자 사후 이슬람 초창기의 헌신적이고 독실한 신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연구조사를 통해 집대성했다.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原典)이지만, 하디스는 꾸란에 대한 해설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꾸란의 뜻과 교훈을 완전히 이해함에 있어서 하디스의 연구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써 하디스의 도움 없이는 꾸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하지(Hajj)**: 성지순례.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슬람의 다섯 번째의 의무이다. 하지(성지 순례)를 위한 첫번째 부름은 사도 아브라함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시련을 기념한다. 매년 약 이삼백만 명의 무슬림이 성지순례를 행한다.
- **후다이비야(Hudaybiyyah)**: 서력 628년에 메카와의 10년간의 정전 및 메카 순례 허용하는 내용의 협정.
- **히즈라(Hijrah)**: 서력 622년에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에게 메카를 떠나 이주하도록 명령하셨다. '히즈라' 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그들은 메카를 떠나 북쪽으로 떨어진 메디나를 향하게 되며 이것이 이슬람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 한국이슬람연구회 간행물

Islamic publications by Korea Islamic Research Association





# ﴿ حياة خاتم الأنبياء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 باللغة الكورية »

يوسف إسلام

ترجمة: أمينة زهيد